

자조금 사업 활성화 지역 양계발전의 초석



▲ 30년간 지회발전을 위해 뛰어온 박옥룡 지회장

30년간 양계발전 노력

대한양계협회 전북지회(지회장 박옥룡)는 지난 1974년 6월 15일 설립되었다. 서울에 본회가 창립된 이듬해였다. 당시 구례부회장 김석중 씨가 초대 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 왔다. 당시 채란업을 경영하던 박옥룡 사장(현 지회장)과 도청에서 근무하던 백승훈(현 하림 부사장)씨 등 지인들이 지회 설립의 초창기 멤버로 활약하였다. 전북지회는 1980년대 이후 전북양계농협이 활성화되면서 축

협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서비스는 물론 회원들의 권익에 앞장서 왔다.

현재 전북지회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는 180농가로 채란이 97농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계(83)와 종계(17)가 뒤를 잇고 있다. 전북 지역의 지부는 정읍(지부장 조명옥), 남원(지부장 조귀봉), 완주(지부장 박원모) 등 3개 지부가 있는데 활동이 왕성한 지부는 정읍(조명옥)과 남원지부(조귀봉)이며 김제 지역도 아직 지부로 승격되지는 않았지만 연합회(연합회장 박광식) 형식으로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가 손해 결코 없어야

지회를 이끌고 있는 박옥룡 지회장은 현재 2만 수의 채란업을 경영하면서 매일 지회에 나와 살림살이를 챙기는 등 8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말에는 지병(암투병)으로 잠시 지회장직을 떠난 적이 있으나 완쾌된 이후 회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복귀를 하여 지회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지회 설립 초창기부터 양계역사의 산 증인인 박옥룡 지회장은 1980년대 초 협회 임원(당시 부회장)을 맡아왔으며, 1990년부터는 15년여동안 지회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박 지회장은 '농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봐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갖

고 현재까지 지회를 이끌어 왔으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비를 거출하는데도 신중을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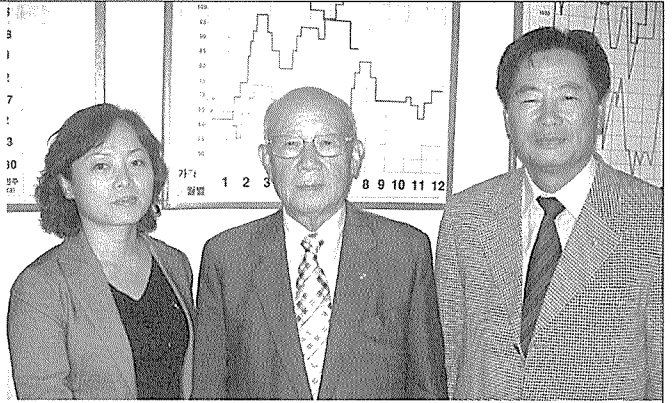
지회 활성화 기대

전북지회는 축협이 통합되기 전까지 전북양계축협과 연계하여 회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고 살림살이도 넉넉했으나 전북양계축협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차 가공사업에 실패를 하고, 농협과 통폐합이 되면서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채란업 중심으로 지회가 이끌어져왔고, 최근에는 육계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 육계인들도 협회의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지회의 살림살이는 과거에 비해 위축되어왔지만 금년 3월 이희완 상무가 협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희완 상무는 잠업진흥회에서 근무한 바 있어 실무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 종계 DB사업과 종계등록 사업이 무리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농가측에서 방문을 자제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일면서 사업에 다소 어려운 점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하림 종계장 등이 있어 종계등록 수수료 등이 지회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회원 서비스 강화에 역점

박옥룡 지회장은 앞으로 양계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지회를 참여시켜 의사를 반영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각 분과별로 결정된 사항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다보니 실무를 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회 직원들과도



▲ 지회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희순 사원, 박옥룡 지회장, 이희완 상무(좌부터)

모임과 대화를 자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업계 당면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회에 대한 본회(중앙회)의 관심과 지원을 높여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지회에 지원하는 종계등록 수수료 비율을 인상시켜 지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거나 자조금 시행시 홍보예산을 각 지회에도 배정을 하여 함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러나 채란업의 의무자조금 사업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육계와 산란계의 자조금 사업이 지역 양계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박 지회장은 회원들의 지회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농가가 영세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 각 시군별 지자체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회의 역할에 관심이 떨어지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부의 활성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회를 중심으로 양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갈 예정이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 임원명단

지 회 장 : 박옥룡
 부지회장 : 박광식(채란분과위원장),
 한병권(육계분과위원장),
 이춘겸(종계부화분과위원장)
 상 무 : 이희완
 감 사 : 윤덕영, 박근식